

تاسا



MENDO / AEDS / 19 COROSO COMO / DUPON / ST. MARY'S CATHEDRAL / BELLA ITALIA / WEINE /
Bob COORDINATION / ATHERTON / Bob COLLECTION / SHOES STORE / CHÓ SÓ HEE / LA TRAVIATA

PROJEC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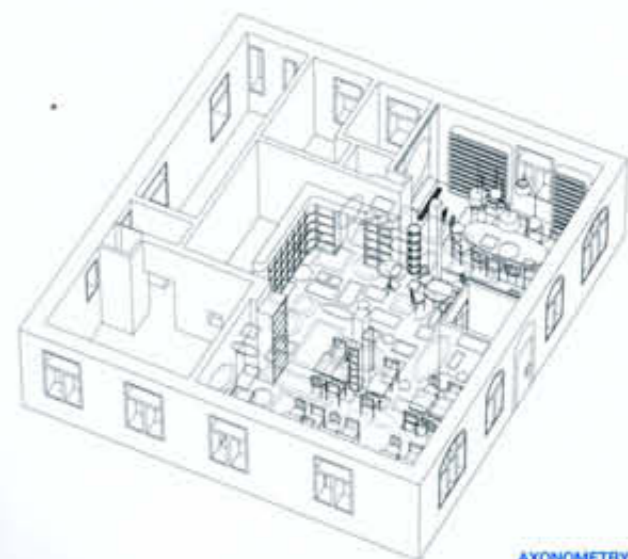
BELLA ITALIA WEINE RESTAURANT & SHOP STUTTGART

Design: Ippolito Fleitz Group

Design team: Peter Ippolito, Gunter Fleitz, Christian Weitz, Judy Hanel, Britta Kleweken, Lena Noh, Anne Schädlich
Client: Bella Italia Weine
Location: Vogelsangstraße 18, Stuttgart, Germany
Completion: Oct. 2007
Build area: 125m²
Photographer: Zoëy Braun
Editor: Lee Hae Rin



Bella Italia is a wine store as well as a restaurant. The owner is a typical warmhearted Sicilian woman. While selling the products of her home country and offering a creative home-style cuisine on an upscale level she transfers the Italian spirit to Germany. "Bella Italia Weine" was run for many years in a small living-room-like place with a very personal atmosphere. To extend the sales area as well as the capacity of seats she decided to move to a new location. The new restaurant is located in Stuttgart West, an urban district which is very popular as a housing area as well as a location for offices working in a creative field. The restaurant is situated in the ground floor of a freestanding multiple dwelling in a charming Wilhelminian style. Our aim was to keep the familiar atmosphere of the first restaurant, highlighting the character as a wine store at the same time. The character of the room is determined by two elements: At the ceiling we have mounted over 90 different mirrors found on jumble sales. The second element is a kind of room in the room. With its large oval table, a large round mirror on a wall with textile covering, a carpet and a bunch of lamps hanging from the ceiling the space appears like a homelike sitting-room. Three large shelf elements allow an effective promotion of the products. A new corporate design completes the image of "Bella Italia Weine". Text by Ippolito Fleitz Group



AXONOMETRY



The ceiling have mounted over 90 different mirrors



The space appears like a homelike sitting room

이폴리보 플라이츠 그룹의 새 프로젝트 (엘라 이탈리아 바이레는 레스토랑 겸 포도주 가게이다. 폴리아엔트는 인정 많은 진형적 시공인이 어자이다. 그는 자기 고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가정식 고급 장식 요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정신 또한 복안에 옮겨 놓는다. 이 곳은 오랫동안 사적 느낌이 물씬 나는 작은 거실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는 매장 공간을 확장하고 좌석을 늘이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새 레스토랑은 슈투트가르트 웨스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주택가로 또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의 사무실로 다목적 인기가 높은 도심 지역이다. 레스토랑은 매력적인 발췌음 양식의 다세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디자인 컨셉은 원래 레스토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포도주 가게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실의 성격은 두 개의 요소로 결정된다. 첫째로, 전장에는 좋고 집동사나 시장에서 발견한 것까지 모양의 거울을 90개 이상 설치 했다. 두 번째 요소는 일종의 실 속의 실이다. 커다란 다원형 식탁, 텍스타일을 씌운 한쪽 벽면에 걸린 커다란 거울, 카페, 전장에 매단 수많은 장등 등 공간은 거실의 거실 같은 모습을 만든다. 세 개의 커다란 소반 요소를 통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 (엘라 이탈리아 바이레)의 이미지가 완성된다.

출처: 이폴리보 플라이츠 그룹

이폴리보 플라이츠 그룹 : 프라 이폴리엔의 근대 플라이츠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함께 건축을 전공했다. 이후 프라 이폴리엔은 베를린에서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근대 플라이츠는 뮌헨에 위치한 스텐하임+피터너 설계사무소에서 피터너 직업을 떠나 프라 건축가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슈투트가르트, 바이스민의 함께 Zipfespaceworks라는 그룹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Panama Advertising Agency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을 가지고 그 해 Contactworld Award를 수상 했다. 이 후 이폴리보 플라이츠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축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분야를 넘-넘어 현재까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Tomoria da Loreta), (Sigrun Woehr), (Salvin), (Proxikirk Kaiserplatz)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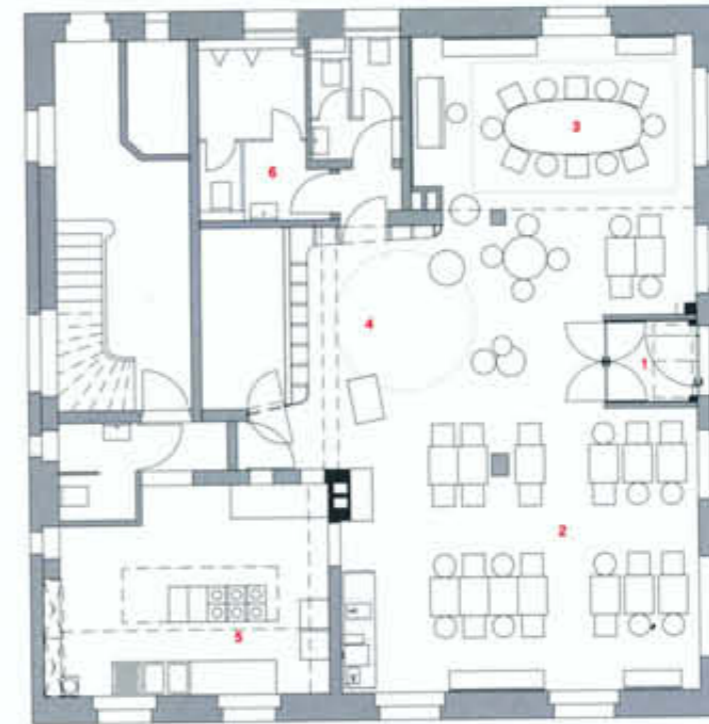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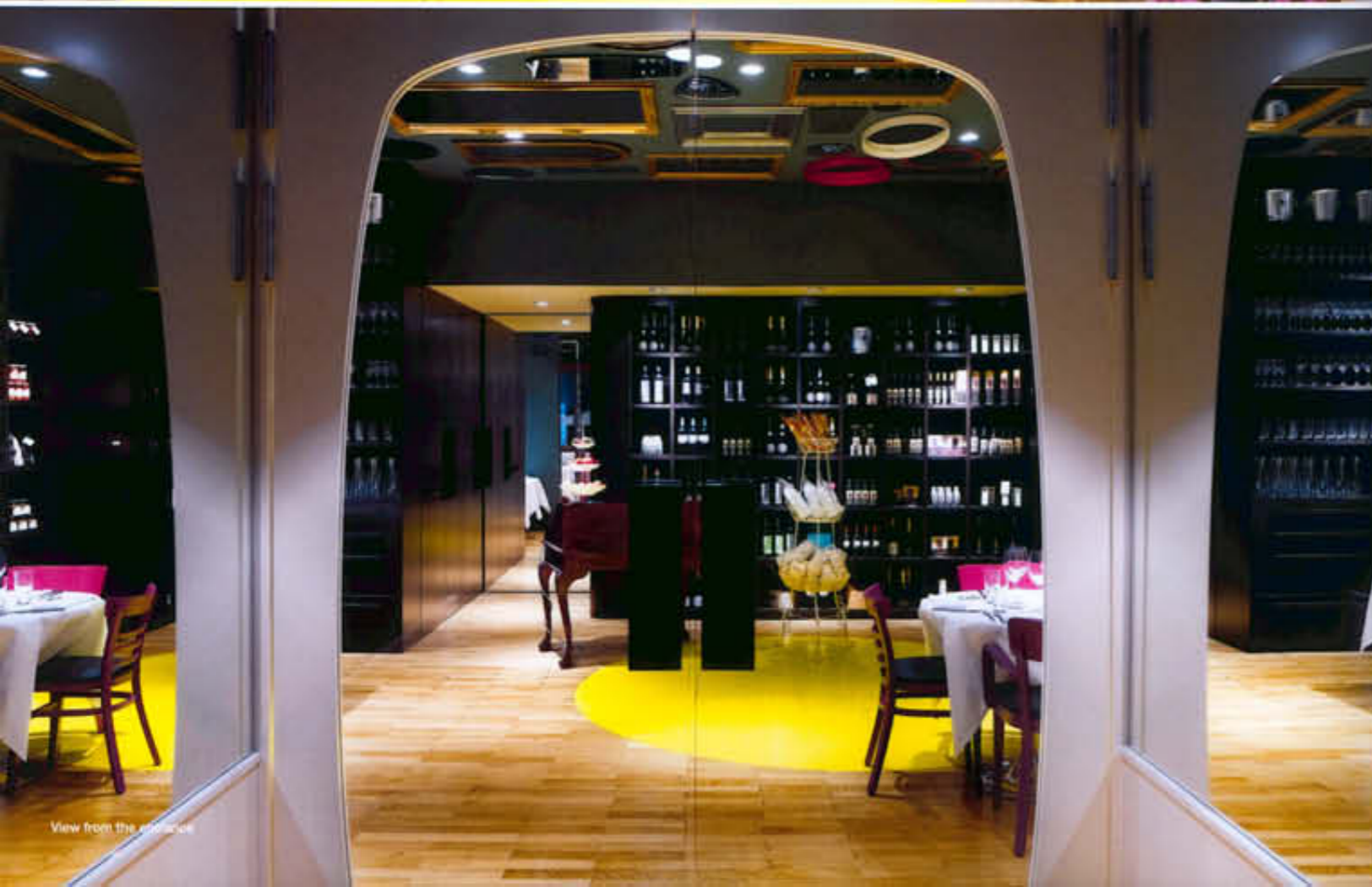
A large round mirror on a wall with textile covering



Concept was to keep atmosphere of restaurant, highlighting the character as a wine store



The shelf elements allow an effective presentation of the products



FLOOR PLAN

- 1 ENTRANCE
- 2 DINING HALL
- 3 DINING ROOM
- 4 DISPLAY ZONE
- 5 KITCHEN
- 6 TOILET

